

유명 연예인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신미영¹⁾ · 소지은¹⁾ · 김진숙²⁾ · 박미미³⁾ · 박지원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살문제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Statistics Korea, 2009)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10만 명당 2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같은 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률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08) 자살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2008년 8월 27일 자살예방관련 제2차 국가시책이 발표되었지만 자살사이트를 통한 집단자살, 동반자살, 유명인의 자살, 모방자살 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Park, 2009).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사회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개인 성격적 요인, 및 정신건강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eautrais, Joyce, & Mulder, 1998; Gould, Fisher, Parides, Flory, & Shaffer, 1996). 일찍이 Durkheim (1951)은 '자살론'에서 자살하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그 이유를 두는 관점에서 자살을 보았다.

자살도 전염된다는 베르테르 현상에 의해 유명인의 자살 뒤에는 일반인의 모방자살이 뒤따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Pirkis, Blood, Beautrais, Burgess와 Skehans(2006)은 이러한 현상이 자살을 고민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주위의 관심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유명인의 자살 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현상(모방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유명 연예인이 숨진 2005년 2월 22일 전후로 하여 하루 평균 자살자가 0.84명에서 2.13명으로 2.5배가 늘었다는 통계(Statistics Korea, 2005)는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자살 시도 유발요인에 대한 조사 및 자살위험군에 대한 가족 간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시사하고 있다.

자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시도 후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자살시도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자에 대한 행정적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Cho, et al, 2002).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보도가 증가하고 실제 모방자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의 자살 보도 후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방하여 자살시도를 하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독자의 알 권리를 앞세운 연예인 자살보도의 선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의 자살보도양태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된다(Kim, 2005).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일 수 있으나 가정문제가 가장 큰 위험요소이며(Kim, 1998) 그 배경에는 가족 및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자살시도와 관련된 특성과 자살시도 전후 상황을 조사하여 가족의 역할과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연계하고 간호전략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살시도환자는 응

주요어 : 자살보도, 자살시도, 유명인

1) 아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 2) 아주대학교병원 주임간호사, 3) 아주대학교병원 팀장

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pjwon@ajou.ac.kr)

투고일: 2010년 9월 30일 수정일: 2010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0일

급실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먼저 진료하게 되고, 중환자가 많으며 의료보험의 적용 및 법의학적 측면 등 진료외적인 문제의 복잡함을 고려할 때 응급실 간호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주호소로 내원했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내원환자의 특성 및 자살시도 양상을 파악하고, 유명 연예인의 자살보도 전후 내원 환자의 자살시도 방법을 비교하여 연예인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의 감소에 기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 자살보도와 일반인 자살시도 방법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모방자살의 감소에 기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환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환자의 자살시도 관련 특성 및 자살시도 전·후 상황을 파악한다.
-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 환자의 유명 연예인 자살보도 전후 자살시도 방법을 비교한다.

용어 정의

● 자살시도

자살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그동안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의적이고 실제적인 자해 등을 포함한 죽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말한다(Reynolds, 1998).

● 자살보도

자살사건을 대중 전달매체를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두 명의 연예인에 대한 자살사건 보도로 한정하였다.

● 연예인

영화, 연극, TV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출연하여 대본과 감독의 연출에 따라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TV드라마와 영화부문에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 자살보도와 일반인 자살시도 방법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 대상병원의 경우 특정손상(자살, 중독, 추락 및 낙상)의 발생유형과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S시에 위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자살시도로 내원했던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가 2006년에 개발한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지’ 항목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만을 선정하여 작성한 조사항목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항목지는 손상환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공통항목 16문항(내원일자, 내원시간, 성별, 나이, 응급진료결과, 손상발생장소, 주거지내 손상발생장소, 음주관련여부, 직업, 학력, 손상기전, 손상발생일자, 손상발생시간, 손상유발물질, 주 증상, 의식상태(AVPU; Alert/Voice/Pain/Unresponsive)와 자살과 관련한 심층항목 5문항(자살시도 방법, 위험인자, 자살시도 과거력, 자살시도횟수, 이전 정신과면담여부) 등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2009년 12월 10일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의뢰서를 제출하여 승인 인증(AJIRB-MED-SUR-09-142)을 받은 후 사건 A(가스 자살)가 발생한 2008년 9월과 사건 B(의수 자살)가 발생한 2008년 10월을 중심으로 전·후 1년간, 즉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에 자살시도를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했던 환자 888명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였다. 자료수집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자 1인이 본 연구도구로 사용한 조사항목지를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분석 하여 자료를 기록, 코딩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자살 항목코드에 따른 전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등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시도 양상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연예인 자살방법에 따른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의 차이는 χ^2 -test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1.6%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40.4세이고 30~39세가 26.1%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2.7%로 많았고, 직업은 있는 대상자가 78.0%로 없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8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341	38.4
	Female	547	61.6
Age(years)	10~19	87	9.8
	20~29	180	20.3
	30~39	232	26.1
	40~49	172	19.4
	50~59	99	11.1
	≥ 60	118	13.3
	Mean±SD		40.43±16.47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16	1.8
	Elementary	55	6.2
	Middle school	171	19.3
	High school	468	52.7
	More than university	153	17.2
	Unknown	25	2.8
Experience of work	Yes	693	78.0
	No	173	19.5
	Unknown	22	2.5

대상자의 자살시도 관련특성 및 자살시도 전·후 상황

자살시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자살시도 관련특성과 자살시도 전후 상황으로 구분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Table 2>.

자살시도 관련특성 항목 중 자살위험자로는 가정문제가 47.4%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19.0%)가 그 다음 순이었으며, 자살시도 과거력은 없음이 85.5%이었으나 시도경험이 있는 대상자도 100명(11.3%)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횟수는 과거력이 있는 100명 중 1회가 71명으로 많았으나 2회, 3회 이상도 29명에 달했다. 또한 이전에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100명중 54명은 정신과적 면담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손상발생장소, 주거지내 손상발생 장소, 음주관련 여부, 의식수준, 내원시간, 응급진료결과를 조사한 바, 손상발생장소는 집이 83.9%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내 손상발생장소로는 방이 65.4%로 가장 많았고 거실(9.3%), 욕실 및 화장실(4.6%)순으로 나타났다. 음주관련 여부에서는 예가 42.2%로 나타났으며, 내원 시 의식상태는 각성상태가 65.3%로 가장 많았고 통증에 반응(15.4%)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내원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7시 사이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후 3시에서 밤 10시 30분 사이(34.5%)이었고, 응급진료결과는 귀가가 52.6%로 가장 많았고 입원(34.6%)이 그 다음 순이었으나 입원 후 사망을 포함하여 사망한 대상자는 10.9%이었다.

연예인 자살보도 전후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자살보도와 모방자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2008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가스(연예인 A)와 의수(연예인 B)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두 명의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자살보도 전후 6개월간의 일반인의 자살시도방법의 차이, 그리고 자살보도 전후 1년간의 일반인의 자살시도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연예인 A의 가스 자살보도 전후 일반인 자살시도방법의 차이

연예인 A의 자살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기간 동안에 일반인이 가스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빈도를 비교했을 때 <Table 3> 자살보도 6개월 전에는 가스 방법에 의한 자살이 0건(0.0%)이었으나 자살보도 후 6개월 동안엔 21건(9.2%)으로 증가하여 연예인 자살보도는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icide attempts (N=88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Risk factors	Family problems	421	47.4
	Health problems	59	6.6
	Psychiatric problems	169	19.0
	Economical problems	55	6.2
	Other risk factors	40	4.5
Relating factor	Unknown	144	16.2
	Yes	100	11.3
	No	759	85.5
Frequency of suicide attempts	Unknown	29	3.3
	None	759	85.5
	1 time	71	8.0
	2 times	15	1.7
Counseling by psychologist	3 times above	14	1.6
	Unknown	29	3.3
	Yes	54	6.1
	No	43	4.8
Place of suicide attempt	Refused	3	0.3
	Unknown	788	88.7
	Home	745	83.9
	Besides at home	137	15.4
Location of happening within the house	Unknown	6	0.7
	Room	581	65.4
	Living room	83	9.3
	Bathroom	41	4.6
	Other places	39	4.4
Suicide attempts after drinking	Unknown	1	0.1
	Yes	375	42.2
	No	331	37.3
	Unknown	182	20.5
Visiting time	07:00 ~ 15:00	211	23.8
	15:01 ~ 22:30	306	34.5
	22:31 ~ 06:59	371	41.7
Conscious state	Alert	580	65.3
	Voice	105	11.8
	Pain	137	15.4
	Unresponsive	66	7.4
Result of primary care (Emergency room)	Discharge from hospital	467	52.6
	Transport to other hospital	17	1.9
	Be hospitalized	307	34.6
	Death	54	6.1
	Death after hospitalization	43	4.8

* Excluded no respondents

<Table 3> The difference of suicide attempts' method of the public six months before and after the release of report of celebrity A's gas suicide

Method of suicide attempt	Six months before and after			A year before and after		
	Before n(%)	After n(%)	Difference χ^2	Before n(%)	After n(%)	Difference χ^2
Gas	0(0)	21(9.2)	18.142***	1(0.2)	42(9.2)	35.973***
Other methods	187(100.0)	207(90.8)		403(99.8)	417(90.8)	
Total	187(100.0)	228(100.0)		404(100.0)	459(100.0)	

*** p<.001

났다($\chi^2=18.142, p<.001$).

자살보도 전후 기간을 늘려 연예인 자살보도 전후 1년 기간 동안에 일반인이 가스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빈도를 비교했을 때 <Table 3> 자살보도 1년 전에는 가스 방법에 의한 자살이 1건(0.2%) 이었으나 자살보도 후 1년 동안엔 42건(9.2%)으로 증가하여 연예인 자살보도는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5.973, p<.001$).

● 연예인 B의 의수 자살보도 전후 일반인 자살시도방법의 차이

연예인 B의 자살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기간 동안에 일반인이 의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빈도를 비교했을 때 <Table 4> 자살보도 6개월 전에는 의수 방법에 의한 자살이 7건(3.6%) 이었으나 자살보도 후 6개월 동안엔 18건(8.1%)으로 증가하여 연예인 자살보도는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855, p<.05$).

자살보도 전후 기간을 늘려 연예인 자살보도 전후 1년 기간 동안에 일반인이 의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빈도를 비교했을 때 <Table 4> 자살보도 1년 전에는 의수 방법에 의한 자살이 22건(5.4%) 이었으나 자살보도 후 1년 동안엔 39건(8.7%)으로 증가하여 연예인 자살보도는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469, p<.05$).

논 의

본 연구는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연예인 자살보도가 일반인 자살시도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기도는 여자가 월등히 많

아 1:3의 비율을 보인다고 한 Min(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령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30~39세가 가장 많은 26.1%, 20~29세가 20.3%를 보였는데 Kim, Kim, Choi, Kim과 Lee(1995)의 연구에 의하면 20대가 최대였고, Choi, Yoo, Kim과 Jun(1995)의 연구에서도 20대 35%와 30대 20.9%, Lee와 Park(1993)의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가 43.4%로 20대와 30대가 높은 자살 기도율을 보였다고 한 연구와 비교시 연령별로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직업은 없는 사람보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자살사망자의 직업별 현황(Statistics Korea, 2007)에서 무직, 교사,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자살기도자의 직업분포에서 무직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Lee와 Lee(1995)의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여 시대적, 환경적 변화 및 직업적 스트레스 등 자살시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는데 Choi 등(200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Kim(1998)은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자살의 위험요소 중 가정파탄, 정신병의 가족력, 약물오용, 자살력, 가정 내 폭력 등 가정문제가 가장 큰 위험요소이고, 다른 위험요소로 총기의 가정비치, 가까운 사람의 자살기도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o, Cho와 Kim(1995)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가장 큰 동기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살의 위험인자로 가정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자살예방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자살기도자의 약 40%는 자살기도 경력이 있다는 Sadock과 Sadock(2000)의 보고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11.3%에서 자살 시도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자살시도 과거력이 있는 100명중 54명은 정신과적 면담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에 2회, 3회이상 자살을 시도했던 대상자도 100명중 29명에 달해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찰과 가족의 관심, 사회적 관심, 자살예방 전략이 요구된다. Kim, Song, Kim과 Lee(1999)의 연구에서는 자살기도 장소가 집이 절대다수였는데

<Table 4> The difference of suicide attempts' method of the public six months before and after the release of report of celebrity B's hanging suicide

Method of suicide attempt	Six months before and after			A year before and after		
	Before n(%)	After n(%)	Difference χ^2	Before n(%)	After n(%)	Difference χ^2
Hanging	7(3.6)	18(8.1)	3.855*	22(5.4)	39(8.7)	3.469*
Other methods	189(96.4)	203(91.9)		384(94.6)	409(91.3)	
Total	196(100.0)	221(100.0)		406(100.0)	448(100.0)	

* p<.05

본 연구에서도 집이 83.9%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살기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구성원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지지하고 있다.

음주와 관련하여 파라쿼트 음독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1997)의 연구에서는 58.8%가 음주와 관련하여 음독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42.2%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응급실 내원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7시 사이가 41.7%로 높게 나타나 자살 시도 위험군의 경우 가족을 통한 세심한 관찰 및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Kim 등(1999)의 연구에서 16~22시 사이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예인 자살보도가 일반인들의 자살시도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예인 A(가스)와 연예인 B(의수)의 자살 보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및 1년 전후의 차이검증을 시행한 결과, 가스의 경우 6개월 전후, 1년 전후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Heo 등(2009)의 연구에서 연예인 A(가스)의 자살보도 이후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 급격히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 시도의 증가는 전체 자살 시도자 수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의수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는 6개월, 1년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Heo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연예인 B의 자살보도 이후 자살시도 빈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Heo 등(2009)은 아마도 한 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때문으로 설명하면서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방송 매체의 보도는 자살시도의 빈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베르테르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Tousignant, Mishara, Caillaud, Fortin과 St-Laurent(2005), Stack(2003)의 연구에서는 2005년 캐나다의 유명 리포터의 의수에 의한 자살 이후 의수의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미디어와 자살에 대한 연관에 관한 42개의 연구를 분석하였을 때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살보도가 14.3배의 모방 자살 효과를 유발하고, 허구의 이야기인 경우 4.03배의 모방 자살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가스 및 의수에 의한 자살시도 방법은 베르테르 효과를 보여 연예인의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운 자살 시도 방법의 확산을 줄이고 베르테르 효과의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는 언론 매체에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

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예인 자살보도에 따른 일반인 자살시도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2007년 10/1일부터 2009년 9/30일까지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전수를 표본수로 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에 개발한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지’ 항목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만을 선정하여 작성한 조사항목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여 1인의 간호사가 888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살을 시도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30~39세가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많았고 직업은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
- 자살시도 관련 특성 중 위험인자로는 가정문제가 가장 많았고 자살시도 과거력은 없음이 많았다. 자살시도 전후 상황으로 손상발생 장소는 집이 대부분 이었고, 주거지내 손상발생장소는 방이 많았으며, 발견당시 음주상태인 대상자는 42.2%였고, 의식상태는 각성 수준이 많았고, 내원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7시 사이가 많았다.
- 연예인 A와 B의 자살보도 전후 일반인의 자살시도 빈도는 6개월 전후 기간에서와 1년 전후 기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예인 자살보도는 일반인의 자살시도 방법 선택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일반인의 새로운 자살 시도 방법의 확산을 줄이고 베르테르 효과의 감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자살시도 위험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 및 언론매체에 대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의 엄격한 적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한 반복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생물학적 요인 등을 고려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 (1998). Youth suicide attempts: a social and demographic profile. *Aust N*

- Z J Psychiatry*, 32(3), 349-57.
- Cho, N. S., Cho, S. H., & Kim, Y. B. (1995). Clinical observation of drug intoxication. *J Korean Soc Emerg Med*, 6(2), 349-356.
- Cho, S. J., Jeon, H. J., Kim, J. K., Suh, T. W., Kim, S. U., Hahm, B. J., Suh, D. H., & Cho, M. J. (2002). Prevalence of suicide behavior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nd risk factors of suicide attempts in junior and high school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1(6), 1142-1155.
- Choi, D. C., Kim, H. R., Kim, C. H., Park, S. H., Kim, S. H., Cho, Y. R., & Pyo, K. S. (2000).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e attempters visiting emergency room.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9(1), 36-49.
- Choi, O. K., Yoo, J. Y., Kim, M. S., & Jung, K. Y. (1995). Acute drug intoxication in ED of urban area. *J Korean Soc Emerg Med*, 6(2), 324-329.
- Durkheim, E. L.(1951).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ry, M., & Shaffer, D.(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Arch Gen Psychiatry*, 53(12), 1155-1162.
- Heo, I. Y., Choi, S. C., Lee, C. A., Ahn, J. H., Min, Y. G., Jung, Y. S., Cho, J. P., & Kim, J. S. (2009). Influence of the werther effect : An increase of international carbon monoxide poisoning. *J Korean Soc Clin Toxicol*, 7(2), 143-149.
- Kim, J. J.(1998). A Study on the introduction schemes of prevention program and mental health policy about murder followed suicide as a dimension of social welfare. *Mental Health & Social Work*, 6, 99-120.
- Kim, S. J., Kim, K. S., Choi, S. W., Kim, I. P., & Lee, Y. S. (1995). An epidemiological study of patients with acute poisoning in urban and rural areas. *J Korean Soc Emerg Med*, 6(2), 454-488.
- Kim, S. J., & Lee, Y. S. (1997). A clinical description of 17 survivors after paraquat poisoning. *J Korean Soc Emerg Med*, 8(1), 93-97.
- Kim, S. Y., Song, H. S., Kim, K. D., & Lee, K. K. (1999). A study of patients with suicidal attempt. *J Korean Soc Emerg Med*, 10(4), 560-567.
- Kim, Y. J. (2005). Reporting on suicide before and after the suicide guidelines presented.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6), 140-165.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06). *응급 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결과보고서*. Seoul.
- Lee, J. J., & Lee, J. N. (1995).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in the Taegu-Kyungpook area referred to department of psychiat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4(1), 177-192.
- Lee, J. K., & Park, J. H. (1993). Clinical observation of acute drug intoxication. *The Journal of Won Kwang Medical Science*, 9(2), 35-42.
- Min, S. G. (1993). *Modern Psychiatry*. Seoul: Iljogak.
- Park, J. Y.(2009).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 suicid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6(10), 249-272.
- Pirkis, J., Blood, R. W., Beautrais, A., Burgess, P., & Skehans, J. (2006). Media guidelines on the reporting of suicide. *Crisis*. 27(2), 82-87.
- Reynolds, W. M. (199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dock, B. J., & Sadock V. A.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th ed., Vols. 2031-2040).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Stack, S. (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7(4), 238-240.
- Statistics Korea (2005). 2005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ause of death.
- Statistics Korea (2007). 2007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ause of death.
- Statistics Korea (2008). 2008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ause of death.
- Statistics Korea (2009). 2009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ause of death.
- Tousignant, M., Mishara, B. L., Caillaud, A., Fortin, V., & St-Laurent, D. (2005).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f the suicide of a well known Quebec reporter. The Case of Gaëtan Girouard. *Soc Sci Med*, 60(9), 1919-1926.

Influence of Famous Entertainer's Suicides on Suicide Attempts of the Public

Shin, Mi Young¹⁾ · So, Ji Eun¹⁾ · Kim, Jin Sook²⁾ · Park, Mi Mi³⁾ · Park, Jee Won⁴⁾

1) Head Nurse, Ajou University Hospital, 2) Charge Nurse, Ajou University Hospital

3) Manager of the team, Ajou University Hospital, 4) Professor, Ajou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the suicide of two famous entertainers on the suicide attempts of the public. **Method:** The subjects of the descriptive study were 888 suicide attempt patients recruited from October 2007 to September 2009 in an emergency centre located in S-city. The research tools were developed at the Centre for Disease Control. **Results:** The frequency of suicide attempts during the 6 months and 12 months preceding and following the gas-related suicide of celebrity A were $\chi^2=18.14$ and $\chi^2=25.97$, respectively, and both were significant(both $p<.001$). The frequency of suicide attempts of the 6 and 12months before and after the release of report of celebrity B's hanging suicide were $\chi^2=3.85$ and $\chi^2=3.47$, respectively, and both were significant (both $p<.05$).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reports of suicide of celebrities influences suicide attempts of the public. Multiple factors that can influence suicide attempts should be further identified and researched.

Key words : Suicide report, Suicide attempted, Famous pers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ee Wo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an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443-749, Korea

Tel: 82-31-219-7011 Fax: 82-31-219-7020 E-mail: pjwon@ajou.ac.kr